

1930~40년대 익산문묘 예산의 식민지적 운용과 '동원된 전통'

설주희*

목 차

- | | |
|------------------|------------|
| 1. 서론 | 4. 결론 |
| 2. 익산문묘 예산안의 구성 | 참고문헌 |
| 3. 향교예산의 식민지적 운용 | <Abstract> |

국문초록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정책을 조선 촌락까지 효율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각종 지역공동체와 사회단체를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향교는 자연스럽게 식민권력의 통제권 안으로 포섭되었고, 식민권력은 향교를 통해 촌락 말단까지 식민 이데올로기와 일본제국주의의 효용 가치를 홍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일제강점기 향교가 식민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활동한 실제 사례를 익산문묘 예산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익산문묘 세입·세출 분석 결과 전통시대 지역민의 윤리적 소양과 교화, 성현에 대한 예를 집례하던 향교는 일제강점기 이후 그 운영 형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향교 운영권 및 재산처분권이 지역 유림이 아닌 조선총독부 권한으로 이관되었고, 이로 인해 향교 활동 역시 관변적인 성향을 보였다. 전시체제기에 가까울수록 향교의 식민지 동원 활동은 더욱 노골화 되었다.

익산문묘의 관변적 활동 양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출 항목은 '교화비'와 '기부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객원교수, E-mail: sjh0110@korea.kr

및 보조금'이다. '교화비'는 지방개량비, 강연 및 강습회비, 선행자 표창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모두 193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식민지배정책과 관련되어 전시체제가 지역사회 동원에 그 목적이 있었다. '기부 및 보조금' 지출의 특징은 '식민지배 관련 단체 지원'과 '시찰(視察) 지원'이었는데 이 역시 시국 인식 및 전시체제 동원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전근대 향교는 지역민 교화와 향촌 교육을 중점으로 활동하였지만 근대에는 식민지배체제에 예속되어 식민선전기관으로 전락하였다. 1930~40년대 익산문묘의 지역사회 활동 역시 외피만 '향교'라는 전통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운영의 본질은 근대 식민권력기구 형태와 동일하였다. 익산문묘는 전근대와 동일하게 '교화'를 표방하였지만 이 때의 교화는 근대 식민주의가 유입된 이전과 다른 형태의 교화였고, 사회교화의 중요성은 일제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조되었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향교재산, 사회교화, 지역지배

1. 서론

19세기 후반부터 보이는 제국주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공동체 및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식민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 효용 가치를 선전한 것이다.¹⁾ 조선총독부 역시 식민지배정책을 조선 촌락까지 효율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각종 지역공동체와 사회단체를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향교는 다른 단체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시대적 맥락에서 향교는 전통시대를 거쳐 근대로 이어진 연속성을 보이고, 행정적으로는 지역과 중앙을 잇는 교차점에 위치하였다.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이어져 온 시대적 특성은 곧 지역민들에게 '익숙함'이자 '관습'으로 체화되어 향교를 지역 여론 형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고, 지역과 중앙을 잇는 행정적 특성은 식민권력에게 '지배정책의 효율적인 전파'라는 측면에서 장점이었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향교는 자연스럽게 식민권력의 통제권 내로 포섭되었고, 식민권력은 향교를 통해 촌락까지 식민 이데올로기와 일본제국주의의 효용성을 홍보하였다.²⁾

1) 박지향,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 일제강점기 향교 운영의 식민지성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김명우, 『日帝 植民地時期 郷校 研究』, 중앙대학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일제강점기 향교가 식민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활동한 실제 사례를 향교 생산문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조선총독부 향교 정책 변화에 기반하여 개별 향교의 활동상을 단편적으로 살펴본 하향식 시선의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특정 향교의 활동상에 기반하여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을 살펴보려는 상향식 시선의 천착이다. 향교 활동상을 살펴볼 자료로는 향교 예산 보고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수행된 향교와 향교 재산 연구가 경학원 혹은 학무국에 보고된 최종 예산안에 집중하였다면, 본고의 연구자료는 향교→군수→도지사→조선총독부 순으로 보고된 상향식 형태의 예산안 보고서이다. 이러한 문건의 장점은 최종 예산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각 예산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추가 예산안, 추가 예산에 대한 설명, 작년 대비 증감율과 그 이유 역시 예산 집행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때문에 예산 활용 목적과 시기별 변화상을 동시 조망하여 조선총독부의 향교 운영 목적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자료로는 익산문묘에서 생산한 문서군을 활용한다. 일제강점기 익산은 식민지 도시개발 계획으로 단시간 내에 농업지대에서 식민도시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리는 배후에 군산을 두고 있어 경제 도시 오사카와 수직적인 도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리는 '식민도시'이자 '이민자 도시', '농업 도시', '철도 도시', '위생 도시', '경제도시'로 성장하였다.³⁾

하지만 도시의 성장 속도가 급증할수록 도시의 슬럼화 현상, 특히 조선인 빈곤현상이 확대되어 지역 사회 내에서는 식민 개발과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확산되어 갔다. 전통도시 유력자와 경제도시 자본가의 대립, 불평등에 기인한 민족 간 불화, 자본과 노동의 갈등, 사회주의 유행 등 익산의 전통과 근대는 끊임없이 길항하였다.

이 길항 관계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낮선' 근대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전통을 소환하였다. 식민 행정의 통제권 내에 위치함과 동시에 지역 여론 조성의 역할을 수행한 향교가 그 방안 중 하나로 소환된 것이

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태동고전연구』 3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서동일, 『함양향교 소장문서에 나타난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향교 동원과 변형』,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2019.; 설주희, 『근현대 위성 공동체의 등장과 지역사회 변동-전주향교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장순순, 『석전의 상징성과 향교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 『태동고전연구』 4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3) 정승진,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 『아세아연구』 15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다. 조선총독부와 지역공동체의 교집합에 위치한 향교는 전통적 사회공동체를 기반으로 식민 정책을 촌락에 전파시킬 수 있는 매개체였고, 이는 익숙한 전통에 기대어 낯선 근대 식민제도를 지역사회에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 익산문묘의 지역 사회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활용될 익산문묘 문서군은 소장자 요청으로 비공개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본 문서가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활발히 조명 받지 못하였다.⁴⁾ 익산문묘 생산문서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60여 년에 걸쳐 작성된 기록으로 총 400여 건의 공문서와 36권의 전적을 포함하고 있다. 해방 직전과 한국 전쟁 중에도 작성되어 기록에 연속성이 있고, 익산문묘가 상부 기관에 보고한 문서, 향교 내부 문서, 지역 내 활동 사항 관련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향교 생산 문서의 대부분이 향교 내부적·외부적 문제로 인해 소실되었기에 현전하는 향교 생산 문서는 소수이다. 익산문묘 생산문서처럼 연속성을 지닌 문서군은 더 드문 실정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향교의 지속적인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익산문묘 생산문서를 통해 향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익산문묘 예산안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세입, 세출 구조의 특성을 확인한다. 예산 항목 구조의 내용과 시기별 변화, 예산 증감 등 예산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익산문묘 활동이 지닌 시기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후 3장에서는 2장에서 확인한 예산안의 특성이 실제적 활동으로 어떠한 형태로 표면화 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더불어 익산문묘 예산설명서에 기재된 활동 내용과 각종 신문기사 등을 추가 보완하여 익산문묘 운영의 시기적 특성을 짚아보고자 한다.

2. 익산문묘 예산안의 구성

1910년 공포된 「향교재산관리규정」에 따라 향교재산은 부윤 혹은 군수가 관리하되 관찰사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이로써 예산 수립과 출납 등에 관한 권한은 관찰사에게 있었고, 관찰사는 이를 학부대신에게 보고할 의무가

4) 익산향교 생산문서는 권익산의 연구(권익산, 『일제강점기 익산향교 연구』, 『청람사학』 13, 2006)에서 처음 조명되었고, 이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에서 해당 자료의 자료집 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익산향교 생산문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발생하였다.⁵⁾ 이후 1920년 6월 29일 총독부는 「향교재산관리규칙」을 제정해 ‘향교 재산의 매각, 양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⁶⁾ 향교재산이 이전과 달리 지역 유림의 여론이 아닌 중앙통치기구의 정책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통제형 예산 집행 방식은 1940년대까지 동일하게 작용하였다. 익산문묘 예산서 보고 체계를 살펴보면 ‘각 향교-익산문묘 장의회-익산군수-전라북도지사’ 순으로 예산 수립 및 지출 결과가 보고되었고, 전라북도지사는 이를 조선총독부 혹은 경학원에 보고하였다. 예산의 수립과 지출이 조선총독부와 불가분 관계에 있었기에 익산문묘 예산과 그 활동에는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장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익산문묘 예산안의 세입, 세출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향교 예산 운용 형태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 1. 익산문묘 예산 세입 항목

연번	예산 항목	내용	비고
1	재산 수입	소작료	
		대지료	논, 밭, 대지, 잡종지
		생산물 수입	갈대 판매 대금
		예금이자	기금 이자
2	雜수입	예금 이자, 소작료 체납 소송비 환입금 등	
3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4	道 보조금	향약 및 국어강습회 보조	1935년 신설

<표 1>은 익산문묘 예산 중 세입 항목을 정리한 표이다. 세입은 크게 ‘재산 수입’, ‘잡 수입’, ‘이월금’, ‘도 보조금’으로 이루어졌고 ‘재산 수입’은 다시 소작료와 대지료, 생산물 수입, 예금이자로 구성되었다. ‘생산물 수입’은 주로 경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등을 판매해 발생하는 수입이었으며, ‘잡수입’은 예금 이자와 소작료 체납 소송으로 얻게 된 자금이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1935년 ‘도 보조금’ 항목 신설이다. 도 보조금은 ‘향약’과 ‘국어 강습회’를 위해 지원되었다. 1932년 경제 침체에 빠져있던 조선총독부는 이전부터 조선 사회에 자리 잡고 있던 향약 덕목인 ‘덕업상권(德業相

5) 「향교재산관리규정」, 『官報』, 1910년 4월 28일.

6) 「향교재산관리규칙」, 『官報』, 1920년 6월 29일.

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주목하였다. 향약이 경제적 자립 문제와 함께 지역 민심을 지배 정책에 알맞게 ‘교화(教化)’ 할 수 있는 덕목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33년 학무국장은 ‘각 지방에 보급되어 발달한 향약을 부흥시키는 것이 비교적 실현하기 용이’함을 밝히며 신설된 향약 단체와 기존에 있던 향약 단체를 막론하여 모든 향약 단체에 기본 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외에 ‘생활개선(生活改善)’과 ‘산업장려(産業獎勵)’라는 두 개 조목을 신설케 하였다. 이 외에 실효를 거둔만한 조항이 있다면 지역별 실정에 따라 1~2개의 조목을 더 추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추가 지시한 ‘생활개선(生活改善)’과 ‘산업장려(産業獎勵)’는 자력(自力)에 따른 생산성 고양으로 경제 개생을 도모하는 농촌진흥운동의 목적과 동일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촌락 사회 구성원의 생활을 향약 규약으로 통제하여, 개인에게 적극적인 경제 활동의 수행을 중용하고 이로써 ‘봉공(奉公)’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향약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에게 식민지배 정책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강권하기 위해 마련된 ‘선택된 전통’이자, 변형되어 ‘소환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⁷⁾

1934년 9월 전라북도는 ‘구관(舊慣)에 얽매인 유림의 생활방식을 개생’시키기 위해 도내 각 문묘에 향약을 조직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향약 조직의 목적은 ‘산업경제 향상 발달’과 ‘봉사 정신 함양’에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향촌 사회의 사표(師表)인 도내 9,000여 명의 유림이 향약으로 각성하여 활동한다면 향촌 내 농촌진흥운동의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⁸⁾

이로 인해 1935년 1월 익산군은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익산군 소재 4개 문묘에 각각 향약을 설치하였고, 2월 14일 익산군수는 익산문묘에 <향약사무취급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하달하며 ‘향약 규칙과 함께 특히 재무에 관한 예산장부 등을 별지 양식에 따라 만들어 매년 춘계 정기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익산문묘는 매년 향약 수입 지출의 예·결산 내역과 현금 수납부를 익산군수에게 보고하였고, 전라북도는 매년 익산군 각 문묘에 35원씩 총 140원의 지원금을 보조하기로 하여 향약의 확산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⁹⁾

한편 1938년부터 도 보조금 항목에 ‘향약비 보조’ 외에 ‘국어강습회 보조’

7) 설주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유교윤리 소환과 경제개생 프로젝트』, 『남도문화연구』 41,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8) 『전북 도내 유림단 향약발회식 거행』, 『매일신보』, 1934년 9월 24일.

9) <鄉約事務取扱ニ關スル件>, 益山郡守, 1935.

항목이 추가되었다. 익산문묘 장의회는 '국어강습회 보조' 항목 신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¹⁰⁾

본 항을 신설함은 193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소학교 혹은 간이 학교를 중심으로 국어강습회를 개최하여 국어의 신속한 보급을 계획해 황국신민의 신념을 향상하고 총후정신의 파악에 이바지시키고자 실시가 필요한 바이다. 경영비 전액은 국고에서 道費를 거쳐 향교재산 산을 통해 실시 보조케 한다.

익산문묘는 국어강습회 설치 이유로 '신속한 국어 전파를 통해 황국신민의 신념을 확산시켜 총후정신 파악에 이바지시키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한 경비는 국비에서 지출되었으며 이 자금은 각 도를 거쳐 향교재산으로 유입되었다.

당시 조선교육회 조사에 따르면 1939년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의 수는 2,2098,310명이었고 이 가운데 일본어를 약간 이해하는 수준은 1,491,128명, 통상적 회화가 가능한 수준은 157,7912명으로, 일본어 보급률은 13.89%로 집계되었다. 조선교육회는 본 수치를 만주지역 일본어 보급률과 비교하며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일본어 강습을 하여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강습회의 목적은 일본 정신의 체득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¹¹⁾

지금 반도 동포는 일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황국신민이 되어 일본정신의 파악과 체득에 진격하고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간 언어와 풍습, 정치를 달리해 온 관계로 인해 하루 아침에 국민적 성정(性情)의 자각, 국민적 전통을 이해함은 곤란하다. 그 이상(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습득함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내선인(內鮮人) 서로가 같은 언어를 말하며 어우러지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이 통함을 느끼는 것. 더 나아가 일본의 국민문학에 가까워지게 됨은 국민적 성정을 체득함도 가능하다. (중략) 서로 친애·협조하여 진실로 내선일체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약 20년 간 조선에서 일본어 교육을 담당한 곤도

10) <1939年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39.

11) 近藤時司, 「朝鮮に於ける國語教育と社會教育」, 『文教の朝鮮』179, 朝鮮教育會, 1940.

고키지(近藤時司)는 일본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와 같이 일본어 교육의 최종 목적이 내선일체를 통한 황민화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조선 사회에 빠른 일본어 보급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익산문묘에서 진행한 국어강습회가 본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에 대한 일본어 강습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효과적인 전파를 기획한 일본제국주의의 지역지배논리가 향교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익산문묘 예산안 가운데 세출 항목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익산문묘 예산 세출 항목

연번	예산 항목	내용	비고
1	문묘비	향사, 祭具, 건물 수선 등	
2	재산비	조세 및 공과금, 재산조성금	
3	사무비	장의, 사무원 등의 급료 및 여비	
4	적립금	備荒적립금, 건물 재건 적립금 등	
5	지방교화비 (사회교화비)	지방개량 및 사회교화	1937년부터 '사회교화비'로 명칭 변경
6	기부 및 보조	각종 단체 기부 및 보조금	
7	잡지출	소송비 등	
8	예비비		

<표 2>는 익산문묘 예산 세출 항목이다. 세출항목은 '문묘비', '재산비', '사무비', '적립금', '지방교화비(사회교화비)'¹²⁾, '기부 및 보조', '잡지출', '예비비'로 나누어 진다.

세출항목 가운데 비중이 큰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 세출 항목의 1930~1940년대 예산 누적액 합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는 익산향교에서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던 활동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2) 전근대 교화가 백성의 도덕관념을 유교 윤리로 수렴시켜 사회 안정을 도모하였다면, 식민지기 교화는 식민지민에게 근대적 사고방식을 주입시켜 식민체제 공고화를 전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같은 형태의 교화를 '사회교화'로, 그 일환의 활동을 '사회교화사업'으로 명명하며 식민지 사회의 사상적 통제와 물질적 동원을 의도하였다. 설주희,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화' 轉用 : 도덕적인 백성에서 노동하는 '국민'으로』, 『민족문화논총』7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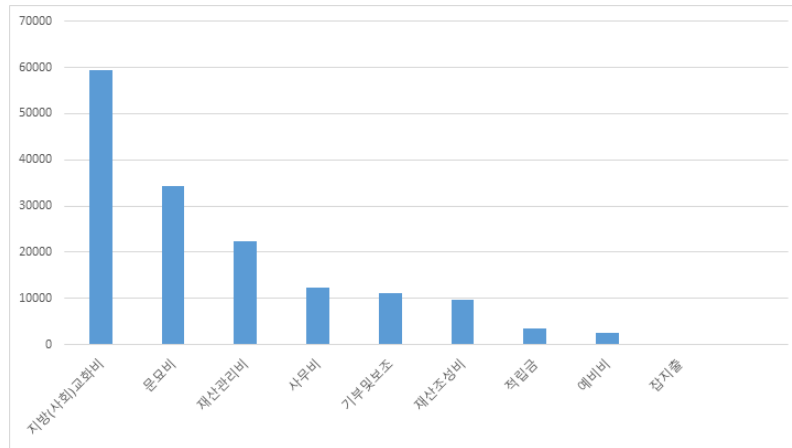


그림 1. 1930~40년대 세출항목별 예산 누적액 비교 (단위 : 원)

세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지방교화비’로 1937년부터 ‘사회교화비’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방(사회)교화비의 총 누적 예산액은 59,394원으로 세출 항목 가운데 단연 많은 금액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문묘비(34,294원), 재산관리비(22,458원), 사무비(12,441원), 기부금 및 보조금(11,104원) 순이다.

전통시대 향교는 공교육기관으로 유학을 통한 지방민의 교화와 지역사회 여론 형성의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익산문묘는 전통시대와 달리 유학 중심의 ‘문묘’ 운영에 중점을 두기보다 ‘지방교화’에 역점을 두고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문묘의 교화 활동이 꾸준한 중점 활동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사회)교화비의 연도별 예산증감률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세출액 내 교화비와 문묘비의 백분율 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1933년 문묘비는 세출액 내 41%를 차지하였고, 교화비는 30%를 차지하였으나 1944년에 문묘비는 19%, 교화비는 40%에 이르는 역전 현상을 나타낸다. 이는 익산문묘의 운영방식이 ‘문묘 운영’에서 ‘사회교화’로 그 중심이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 문묘 예산의 관리 감독권이 조선총독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곧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화비’는 1937년 ‘사회교화비’로 명칭이 변경된다. 1937년은 조선총독부가 사회교화사업의 확장을 단행한 해이다. 조선총독부는 사회교화사업 예산 증액과 함께 담당 부서를 확대·개편하여 조선총독부 내 사회교화 담당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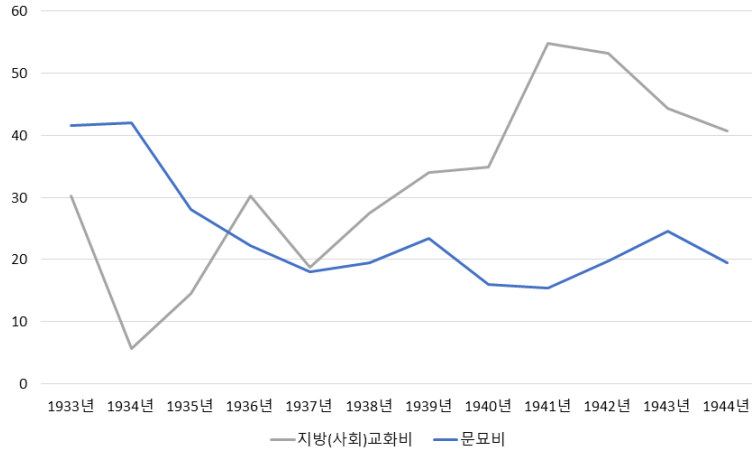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지방(사회)교화비 및 문묘비 백분율 변화 추이 (단위 : %)

원을 증원하였다. 이에 1933년 24명이었던 학무국 소속 사회교화 담당 직원은 1936년 29명으로, 1937년 5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사회교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설치하였던 사회교화촉탁을 ‘지방교화주사(地方教化主事)’로 승격시키고 그 인원 또한 증원시키는 등 사회교화사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였다.¹³⁾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식민지 조선의 경제는 전쟁 물자의 수급도 어려웠으나 조선총독부는 심화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회교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공표하였다.¹⁴⁾ 조선총독부는 전쟁의 승패가 국민 사상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성전(聖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국민 사상 통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국민 사상의 통제는 민중 생활의 통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 활동은 민중과 접촉이 잦은 지역 단위 행정기관의 역할이 다대하였다.¹⁵⁾

13) 설주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사회교화사업연구』, 전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145~150면.

14) 『總督府 機構 改革 明年度엔 企劃部 厚生局 新設 渡東前의 大野總監談』, 『동아일보』, 1938년 11월 27일.

15) 한 예로 1938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은 ‘사회교화사업 확장’이라는 조선총독부 시정방침이 하달되자 수행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참석자는 청성면에 거주하는 각 구장(區長)과 사회교화단체 간부였으며, 회의 결과 시정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37가지 지시사항이 결정되었다. 지시사항의 주요 내용은 촌락민의 생활과 사상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특징은 조선총독부에서 촌락 통제 방안을 하달한 것이 아니라 면 단위 행정에서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총독부는 시정방침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제시하고, 면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수립하여 촌락민의 생활을 통제하였다. 이로 보아 국민의 사상과 생활을

익산문묘의 사회교화 활동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계획·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익산문묘 지출 내역을 보면 '향약 제반 비용, 교화단체 지도비, 교화사무 촉탁 급료, 여비, 위로금, 잡비, 강사 수당, 강연 제반 비용, 도서 구입비, 매일신보 구독비, 교화 선전 잡비'에 지출되어 주로 사회교화사업 홍보를 위해 예산이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후 총동원체제가 가시화되는 1939년 결산안에는 예산 사용의 목적성이 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1939년 사회교화비는 '시국인식 관련 제반 비용, 교화단체 지도비, 교화 촉탁 수당, 교화선전 기타 잡비, 향약 제반 비용, 경로회, 잡비, 강연 및 강습회비, 선행자 표창비, 도서구입비, 매일신보 및 동광신문 구독비'에 지출되어 전쟁 혹은 교화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매일신보 및 동광신문 구독' 역시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기 위해 구독'¹⁶⁾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익산문묘의 사회교화활동이 전시체제가 식민지 동원 업무와 동일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대 지역민의 윤리적 소양과 교화, 성현에 대한 예를 집례하던 향교는 일제강점기 이후 그 운영 형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향교 운영권 및 재산처분권이 지역 유림이 아닌 조선총독부에 있었고, 이로 인해 향교 활동 역시 관변적인 성향을 보였다. 전시체제기에 가까울수록 지역민과 접점이 많던 향교의 식민지 동원 활동은 더욱 노골화 되었고, 익산 지역 일반민의 사상을 교화하여 황민화 하려는 사회교화 활동은 예산 내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갔다. 다음 장에서는 예산안 세부 항목을 통해 익산문묘의 식민지 동원 활동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향교재산의 식민지적 운용

익산문묘의 활동 양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출항목은 '지방(사회)교화비'(이하 '교화비'로 약칭)와 '기부 및 보조금'이다. 문묘비와 재산비, 사무비 등은 매년 대동소이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반면, 이 두 항목은 시기별로 예산의 증감 및 세부 항목별 변화가 발생하고, <그림 3>과 같이 변화에 따른

통제하는 활동은 중앙 관청보다 면 단위 행정기관의 역할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수집정리번호 D12040334) 충북 옥천 가산박물관 소장 문서. 靑城面, 『指示事項』, 1938.

16) 「1937年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37.

예산 설명 또한 비교적 상세히 부기되어 있어 익산문묘의 지역사회 활동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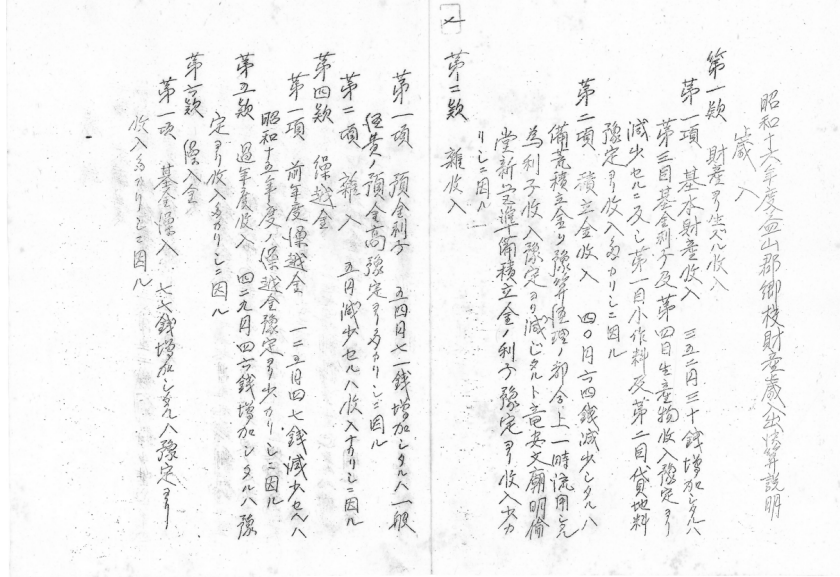


그림 3. 1941년도 익산문묘 예산설명서

각 년도 예산 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한 교화비의 세부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 교화비 지출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화비	지방개량비	향약, 경로회, 교화단체 지도, 시국인식 관련 제반 비용, 雜給
	강연 및 강습회비	유림 및 일반민 교화를 위한 강연 및 강습회
	선행자 표창비	효자, 절부 및 독행자 표창
	도서비	도서구입비, 매일신보 구독비, 東光신문 구독비
	雜費	교화 선전 관련 잡비

교화비는 ‘지방개량비’, ‘강연 및 강습회비’, ‘선행자 표창비’, ‘도서비’, ‘잡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지방개량비는 향약, 경로회, 교화단체 지도, 시국인식 관련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항목으로 이는 모두 193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지배정책과 관련이 있다.

조선총독부는 지역에 향약을 비롯한 사회교화단체의 발족을 장려하며, 이 단체들의 활동으로 이룩한 산업 발전으로 국가 경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단체 조직력을 활용해 효율적인 전시체제 동원을 수행하고자 하였다.¹⁷⁾

이에 1937년 미나미 지로는 각 국장에게 조선 사회교화단체의 활동 현황과 지도 방안을 설명하고¹⁸⁾ 다음과 같은 사회교화사업 강령을 배포해 강령에 따라 일반민을 교화하도록 지시하였다.¹⁹⁾

1. 존엄한 국체관념, 원대한 건국 이상, 빛나는 국헌(國憲) 정신, 3천 년 전통의 국민도덕과 내선일여(內鮮一如)의 신념을 천명해서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일치단결을 더욱 공고히 한다.
2. 내선일여의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동근동조(同根同祖)의 관계에서 나온다. 즉 내선융화에서 내선일체로 나아가 다시 이를 먼 옛날 본연의 모습으로 환원하여 일여(一如)의 이상을 실현하는 한편, 더욱 혈맥적 연쇄(連鎖)를 견고하게 한다.
3. 무릇 난국을 타개하고 국운의 융성을 도모하는 방법은 우리의 존엄하고 숭고한 국체에 기초한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을 더욱 진작하여 이를 일상생활에 실천·구현하는 것에 있음을 주지시켜 철저히 한다.
4. 지위·직업과 상관없이 국민 각자는 지위에 따라 대의명분을 인식하고, 관민일도(官民一途), 노자협력(勞資協力)의 신절(臣節)을 다해 황운(皇運)을 도와 천업을 따르는 정신을 강화해서 국가질서의 안정과 강화를 꾀하고, 국민 각자의 직무에 힘쓰는 기풍을 진작시켜 건실한 국력의 충실에 기여한다.
5. 국민의 지조를 고결하게 해서 일반 교양의 향상과 종래의 폐습 개선, 질실강건(質實剛健)한 순치(順治), 극기(克己), 인고(忍苦), 견인(堅忍), 지구(持久) 정신 함양 등에 유의한다. 또 제국 전통의 미풍양속 유지에 힘써 국가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동시에 이를 명랑화하여 제국 발전의 실현에 기여한다.

17) 설주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유교 윤리소환과 경제강생프로젝트>, 『남도문화연구』 41,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18) 『定例局長會議』, 『동아일보』, 1937년 7월 28일.

19)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 788~789쪽.

미나미 지로가 배포한 본 강령에는 조선과 일본의 혈연적 공통성이 매우 강조되었고, 개인의 희생에 근거한 국가의 발전 논리가 배태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이 전시체제기에 내재되어 있던 식민지배체제의 균열을 사회교화단체를 통해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식민논리에 기초한 사회교화 강령을 각 단체에 배포하며 이에 준하여 활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익산 문묘 역시 지역 사회교화단체였으므로 향약을 비롯한 교화단체 지도 비용이 지출안에 설정되었고, 시국인식 관련 활동 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경로회’ 개최 비용 역시 이와 관련이 깊다. 익산문묘 장의회는 1938년 예산 지출안에 경로회 비용을 신설하며 ‘전시체제하 2년째에 접어들니 장기전에 대비해 총후 국민으로 시국인식과 대응을 해야 할 제반 비용 및 동양 고유의 도덕이자 미풍인 경로 관념을 조장하기 위해 경로회비를 신설’한다고 이유를 밝혔다.²⁰⁾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 지로는 경로 관념이 동양정신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경로애유일(敬老愛幼日)’을 맞아 고령자를 조선총독부 관저로 초대하였다.²¹⁾ 경로애유일은 국민정신작흥운동의 일환으로 지정된 기념일이자, 전시 상황에 노출된 일반민의 사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획책한 정책이다.²²⁾

조선총독부는 예상보다 장기화 된 전쟁에 대비하여 식민지민의 ‘비상시국들과 결의를 굳게’ 하고자 국민정신작흥주간을 설정해 다음과 같은 기념일을 수립·시행하였다.

표 4. 1937년 국민정신작흥주간 일정표

일자	내용
7일	신사참배일·국체명징일
8일	근로존중일·노력분투일(勞力奮闘日)
9일	생활개선일·반성계심일(反省戒心日)
10일	극기인고일(克己忍苦日)·시국인식일
11일	공덕실행일(公德實行日)·공공봉사일(公供奉仕日)
12일	경로애유일·건강증진일
13일	보은감사일·국민친화일(國民親和日)

* 출처: 『精神作興運動 來月七日一週間』, 『동아일보』, 1937년 10월 10일 기사 재구성

20) 「1938年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38.

21) 「南總督金剛山踏破記」, 『동아일보』, 1937년 10월 31일; 「總督敬老會에 왔던 老人들의 誠金」, 『매일신보』, 1937년 11월 14일,

22)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教育課, 『朝鮮社會教育要』, 1938, 20쪽.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가 양로(養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교화단체 역시 지도·장려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경로 관념을 고양시키고자 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²³⁾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 경로사상을 장려한 원인은 일본의 국가관이 가족국가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천황을 가장(家長)으로 위치시킨 일본 국민은 가정 내 질서 곧, 순서를 지켜 가정과 국가의 화목을 도모하여야 했다. 이 때 유교의 효(孝)는 가정 내 순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어 '경신숭조(敬神崇祖)' 개념을 부상시켰다. 전시체제기 국가적 슬로건으로 제창된 경신숭조는 천황의 신격화를 내포하는 표어이다.²⁴⁾

경신숭조란 '일본은 만세일계(萬世一係) 즉, 한 가족을 뿌리로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상은 개인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국민 전부가 숭배해야만 하는 대상이고, 황실은 종가(宗家)이며 국민은 그들의 후예'라는 가족주의 논리이다.²⁵⁾ 따라서 경신숭조는 일반인에게 생활 속 천황숭배와 조상숭배를 유도한 국민도덕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⁶⁾

일본의 효(孝)는 인륜(人倫)을 한층 돈독히 하고 국체와도 잘 합치한다는 특색이 있다. 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황실은 종가(宗家)이자 국가 생활의 중심이다. 신민(臣民)은 조상을 경모(敬慕)하는 마음으로 황실을 경모하고, 천황은 적자(赤子)인 신민에게 사랑을 내린다. ... 우리가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조상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이자 조상에게 효도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충(忠)은 효와 분리될 수 없으며, 충은 효를 근간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체의 기반인 충효일본(忠孝日本)은 여기서 아름답게 빛난다.

어른에 대한 효도와 천황을 향한 충성을 일체화 시킨 경신숭조는 국민들에

23) 조선총독부 지원 아래 양로사업을 수행한 사회교화단체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경성양로원(財團法人京城養老院), 경성불교자제회양로원(京城佛教慈濟會養老院), 경성자혜원(京城慈惠園), 평양양로원(平壤養老院), 진남포양로원(鎭南浦養老院), 영유양호원(永柔養護院), 의주천주교양로원(義州天主教養老院), 선천창신양로원(宣川昌信養老院), 나남불교자제회(羅南佛教慈攝會)이다.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社會事業要覽』, 朝鮮總督府, 1936, 9쪽.

24) 靑野正明,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과 「敬神崇祖」』, 『啓明大學校・挑山學院大學國際學術seminar』 10, 啓明大學校産業經營研究所, 2004, 193쪽.

25) 남상호, 「근대일본의 국체론과 경신숭조」, 『일본학보』 86, 2011, 313~319쪽.

26) 文部省, 『国体の本義』, 1937, 46~47쪽.

게 천황과 조상에 대한 숭배 의식을 고양시켜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심화하고, 국민적 자각으로부터 에너지를 도출하여 생산력 증강과 경제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²⁷⁾

이처럼 효를 위시한 경로사상에는 정신적 단결로 국가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일본의 정책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효’와 ‘경로’의 강조를 비단 ‘동양 미풍의 존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 ‘강연 및 강습회비’와 ‘선행자 표창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산안에 강연 및 강습회 주제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강연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사회교화사업의 증가’와 ‘순회강사 증가’를 이유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1937년부터는 ‘시국 청강회 개최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예산을 증액’²⁸⁾ 한다는 예산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향교의 시국인식 강연회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 조선에서 수십만의 유림은 사변 발발과 동시에 점차 종래의 편견에서 벗어나 시국 인식을 자각하여 1937년 8월 이후 경학원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문묘에서 매월 1일, 15일을 기해 관련 유림이 참여한 가운데 서원문(誓願文)을 읽거나 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와 국위선양을 기원하였다. 또 지방에서는 서고식(誓告式) 거행 후 강연회나 좌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또는 국방헌금을 실행하거나 황군위문과 관련한 시가(詩歌)를 작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활동을 하고 있다.²⁹⁾

1939년 유림들은 시국인식 강연회를 하거나, 매월 2회 문묘 앞에서 절을 하며 전승기원제(戰勝祈願祭)를 지낸다.³⁰⁾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향교 시국강연회는 향교 최대 행사인 석전일(釋奠日)에 맞추어 개최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석전제 참배인 명단과 강연회 참석자 명단을 보고하게 하였다.³¹⁾ 서고식 또한 일시와 참여인원, 장소를

27) 남상호, 위 논문, 2011, 313~314쪽.

28) <1938년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38.

29) 『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 1940. 788쪽.

30) 綠旗日本文化研究所, 『朝鮮思想界概觀』, 1939, 31쪽.

31) 益山文廟, 『文廟釋奠參拜人數報告の件』, 『昭和十二年諸關係書類』, 1937.

보고³²⁾해야 했으므로 유림의 활동은 철저히 조선총독부의 지도·통제 아래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자 표창비' 지출에는 표창 대상으로 '효자, 절부, 독행자'가 설정되어 있으나, 예산 설명안에 따르면 '총후미담(銃後美談) 실정에 비추어 표창할 인물이 많아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³³⁾

'총후미담'이란 전시체제가 비(非)군인으로서의 국민이 전시체제에 맞추어 생활하는 '올바른' 자세를 담은 이야기로, 주로 물자 절약과 멸사봉공,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의 함양을 강조하는 사회적 '미담'의 전형이다.³⁴⁾ 익산문묘 역시 지역 내 총후미담을 실천한 지역민 표창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고, 이는 사회적 '선(善)'이 된 총후국민의 '모범적' 이미지를 지역민에게 암묵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한 식민권력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총동원체제가 본격화 된 1940년대부터는 '국민총력전의 추진력인 남녀청년단의 적극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이들을 표창'³⁵⁾한다고 하여 익산문묘의 표창 목적과 주체가 전시 상황에 맞추어 점차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이 외에도 사회교화사업 관련 종사자를 매년 표창하여 사회교화사업을 진작시켰다.³⁶⁾ 표창의 목적은 사회의 정세와 시국을 볼 때 교화의 중요성이 더해가기 때문이었고, 그 목적은 국민 정신의 양양과 민중 복지의 증진이었다.³⁷⁾ 일본 내각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생활의 안정에 관심을 두어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시국에 적응할 시책 또한 실시하여야 했다.³⁸⁾ 이 연장선에서 관민(官民)의 상호협조를 기반으로 한 표창 정책이 고안되었고 표창식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매년 기원절마다 행해졌다.³⁹⁾

32) 益山文廟, 『文廟誓告式及時局講演會狀況報告の件』, 『昭和十二年諸關係書類』, 1937.

33) <1938年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38.

34) '총후미담'은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사, 매일신보사, 조선방송출판협회, 조선금융협회 등 수많은 언론사 및 단체 등을 통해 서적 및 브로슈어 형태로 출판·배포되어 전시체제가 국민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도덕으로 홍보되었다.

35) 『1940年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40.

36) 표창 대상자는 청소년단 지도, 지방개량, 부인교양, 기타 사회교화사업(종교관계자 포함) 중 그 공적이 현저한 자이다. 1937년에 규정을 확립하여 1938년부터 조선총독부 주도로 매년 실시되었다. 『社會敎化의 功績者 表彰』, 『매일신보』, 1937년 11월 27일.

37) 『教育効績者等選獎』, 『매일신보』, 1940년 2월 12일.

38) 이규수 편역, 『일본제국의회 시정방침 연설집』, 선인, 2012, 393쪽.

39) 『매일신보』, 1942년 2월 11일, 『社會敎化 功績者와 教育効績者 表彰 - 社會敎化 功績者』; 『매일신보』, 1943년 2월 11일, 『社會敎化功績者十一名』;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2월 12일, 『社會敎化功績者表彰』; 『朝鮮總督府官報』, 1939년 2월 13일, 『社會敎化功績者表彰』; 『朝鮮總督府官報』, 1940년 2월 11일, 『社會敎化功績者表彰』;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2월 12일, 『社會敎化功績者表彰』; 『朝鮮總督府官報』, 1942년 2월 12

표 5. 기부 및 보조금 지출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부 및 보조금	기부금	전주신사奉讚會, 명륜학원 경비, 전라북도유도연합회, 조선유도연합회, 국민총동원 익산군연맹 직원비, 전북육영회비, 국민정신총동원 익산군연맹비, 농업보습학교
	보조금	익산군유도회, 익산군체육회비, 교육비, 국어강습회비, 시찰비, 성지 참배 파견비, 전선유도대회 파견비, 전라북도 유도대회 파견비

‘교화비’와 함께 특징적인 세출 항목인 ‘기부 및 보조금’은 ‘식민지배 관련 단체 지원’과 ‘시찰(視察)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익산문묘는 명륜학원, 전라북도유도연합회, 조선유도연합회, 익산군유도회와 같은 유학 관련 단체나 국민총동원익산군연맹과 같은 총동원체제 관련 단체, 그리고 ‘전시 비상체제하 국민 건강의 향상을 책임지는’ 체육회⁴⁰⁾와 전주신사봉찬회 등에 기부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1939년 조선총독부는 유림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고자 ‘조선 대중 가운데 유도(儒道)를 숭봉(崇奉)하여 일반 민중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 계급에 있는 유림 200만 명’을 규합해 조선유도연합회를 발회하였다. 조선유도연합회의 설립 목적은 ‘황도정신 발휘와 함께 유도의 진수를 천명하고, 동아(東亞)의 대동단결 태세를 강화하여 협심하며,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유도연합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강령을 결의하였다.⁴¹⁾

- (1) 경학원을 중심으로 조선의 유림을 연합·통일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황도정신에 기반하여 황도유학을 확립할 것
- (2) 국민총력운동의 취지에 따라 일치협력하는 황국신민의 신념을 굳세게 하고, 이로써 신도(臣道)의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
- (3) 동아 신질서 건설이라는 국시(國是) 즉, 동양문화의 진수를 천명함으로써 일만지(日滿支)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정신을 굳세게 할 것

일, 『社會教化功績者表彰』; 『朝鮮總督府官報』, 1943년 2월 12일, 『社會教化功績者表彰』;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2월 12일, 『社會教化功績者表彰』; 『朝鮮總督府官報』, 1945년 2월 12일, 『社會教化功績者表彰』.

40) 『국민건강주간 5월 2일부터 8일까지』, 『조선일보』, 1940년 4월 15일.

41)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教育課, 『朝鮮社會教化要覽』, 1941, 77~78쪽.

총재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회장은 경학원 대제학이 추대되었고 역원(役員)으로 각 지방 유력자들이 망라되었다. 경비는 국고 보조금과 각 향교재산에서 지출되었고 하부조직으로 도(道) 유도연합회와 군(郡) 유도회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익산문묘 지출안에 나타난 조선유도연합회, 전라북도유도연합회, 익산군유도회 역시 이 조직의 하위 기관이다.

조선총독부가 유림(儒林)을 동원하여 사회교화단체를 구성한 이유는 식민권력이 가진 유림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39년 인천부(仁川府)에서는 '지도계급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유림'을 동원하여 시국인식에 대한 지도교화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선전하였다.⁴²⁾ 또한 1944년 조선유도연합회는 『국체명감(國體明鑑)』 조선어판을 간행하며 '천황의 자손이라는 관념을 심음 사회교화사업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림이 황국 국체관념을 천명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³⁾

결국 조선총독부가 사회교화사업에 동원하고자 한 유림은 '한문을 수학한 전통지식인의 이미지'보다는 '향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배 계급으로써의 유림' 개념에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사표(師表)가 되는 유림을 식민정책에 동원시켜 일반민을 지배체제에 효율적으로 순응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단체를 지원한 익산문묘의 기부 및 지원금은 익산문묘의 자발적 지원이 아니라 각 단체 혹은 지역별 할당량에 따라 의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주신사봉찬회의 경우, 전주신사를 조성하기 위한 기부금을 지역 주민, 관공리 및 지역단체에 배당하여 관공리 24,000원, 공공단체 및 산업단체 44,000원, 향교는 향교 예산액의 2%를 매년 납부하게 하였다.⁴⁴⁾ 익산문묘 예산안 설명서에도 해당 내용은 '각 단체의 소요액에 따라 기부(혹은 보조)함'으로 기술되어 있어 각 단체에서 필요한 금액을 문묘에 지정 납부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⁵⁾

한편 기부 단체 가운데 '농업보습학교'의 존재가 눈에 띄는데 이는 1937년에 한시적으로 신설되었다가 이듬해 폐지된 기부 항목이다. 1937년 전라북도는 완주군과 익산군에 중견청년을 양성하고자 완주군 관내에 농업보습학교 설립을 계획하였다. 설립 비용 4만원 가운데 3천원을 익산군에서 부담하게 하였고, 익산군은 3천원 가운데 1천원을 익산문묘에서 납부하게 하였다. 익산문묘 기부액

42) 『동아일보』, 1939년 1월 13일, 「七百 儒林 動員하여 明德會를 結成」.

43) 『国體の本義』, 文部省, 1937. 87쪽.

44) <全州神社御造營寄附金募集認可, 奉贊會積極的活動>, 『조선일보』, 1938년 9월 9일.

45) <1940年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40.

은 학교 설립 부지 구입 대금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당해년도에 학교 설립이 완성됨에 따라 익산문묘 기부는 1937년에만 단발성으로 이루어졌다.⁴⁶⁾

이와 같이 익산문묘의 기부 및 보조금은 지역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특성은 시찰비 보조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익산문묘는 시찰비 보조 목적으로 ‘문묘 직원 및 장의를 향약 및 농촌진흥에 관한 선진지를 시찰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1939년에는 ‘유림을 군사시설 및 사회교화 선진지를 시찰케 하여 시국을 인식시켜 지방교화에 노력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시찰은 1942년에도 이어져 ‘익산군 대표 유림을 성지 참배를 위해 파견하고, 선진지를 시찰’하게 하였는데 그 목적은 이들을 ‘한층 사회교화에 이바지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⁴⁷⁾ 시찰 목적이 ‘농촌진흥운동’에서 ‘시국인식 및 전세체제 동원’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익산문묘의 전반적인 활동은 사회교화사업을 통한 지역지배정책 전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경제 불황 및 한해 등으로 인한 예산 감축기에도 사회교화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39년 강원도지사가 각 군수에게 ‘향교를 중심으로 사회교화시설을 충실히 하여 경신숭조의 관념을 배양하고, 동양도덕을 천명(闡明)하도록 향교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아 1940년 향교의 사회교화사업비는 지역민을 전시 상황으로 포섭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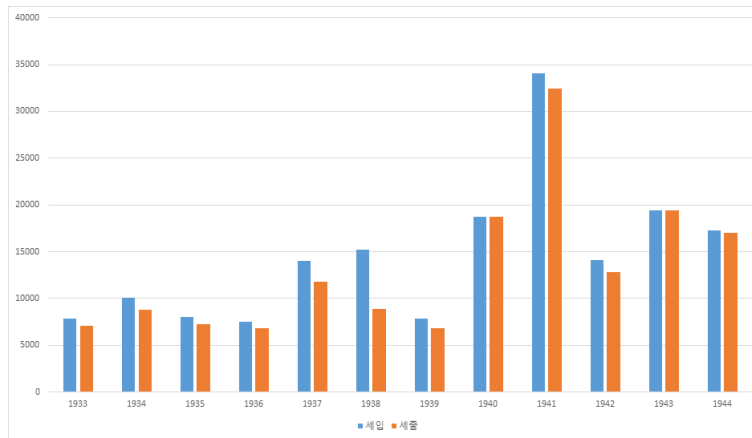


그림 4. 1930~40년대 익산향교 예결산 추이

46) <1938년익산문묘歲入歲出豫算報告>, 익산문묘, 1938.

47) <1942년익산문묘歲入歲出豫算報告>, 익산문묘, 1942.

48) 『江原郷校財産 豫算編成 方針 指示 : 社會教化施設強化』, 『매일신보』, 1939년 3월 5일.

익산문묘 역시 '1939년 미증유의 한해로 사업을 부득이 진행할 수 없어 지출을 극도로 절감'하였다.⁴⁹⁾ 때문에 향사비와 사무비 및 사업비 등을 일괄적으로 삭감하여 위 <그림 4>와 같이 사업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사회교화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4,228원 증가하였다. 사회교화비 증액에 대해 익산문묘는 '현하 시국의 중대성을 볼 때 익산군 민중을 교화해 총량한 황국 신민으로 육성할 책임'이 있어 사회교화비를 증액한다고 설명하였다.⁵⁰⁾

1943년 일본제국주의의 패색이 짙어지던 시기 익산문묘는 재산을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부터 줄곧 매입만 해오던 토지를 매각해 353의 재산매각비를 보고하였고, 1944년에는 익산군 내 4개 향교에 있던 유기 제사용구 534점, 약 119冊을 팔아 808원을 수입으로 보고하였다. 성현 제사에 사용하던 제기를 매각한 1944년 사회교화비는 6,927원이 지출되었으나, 제사비는 1,610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 급속류 공출이 '사회적 미덕'⁵¹⁾으로 여겨지던 전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 향교는 지역민 교화와 향촌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근대에는 식민지배체제에 예속되어 식민선전기관으로 전락하였다. 1930~40년대 익산문묘의 지역사회 활동 역시 외피만 '향교'라는 전통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운영의 본질은 근대 식민권력기구 형태와 동일하였다. 익산문묘는 전근대와 동일하게 '교화'를 표방하였지만 이 때의 교화는 근대 식민주의가 유입된 이전과 다른 형태의 교화였고, 사회교화의 중요성은 일제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조되었다.

4. 결론

19세기 후반부터 보이는 제국주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공동체 및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식민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 효용 가치를 선전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역시 식민지배정책을 조선 촌락까지 효율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각종 지역공동체와 사회단체를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향교는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이어져 온 특성은 곧 지역민들에게

49) <1940年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40.

50) 1941년 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익산문묘는 '1939년에 절감한 예산을 이입금으로 활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941年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益山文廟, 1941.

51) <金屬類 供出 座談會 開催>, 『매일신보』, 1943년 3월 15일.

‘익숙함’이자 ‘관습’으로 체화되어 향교를 지역 여론 형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고, 지역과 중앙을 잇는 행정적 특성은 식민권력에게 ‘지배정책의 효율적인 전파’라는 측면에서 장점화 되었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향교는 자연스럽게 식민권력의 통제권 안으로 포섭되었고, 식민권력은 향교를 통해 촌락 말단까지 식민 이데올로기와 일본제국주의의 효용성을 홍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일제강점기 향교가 식민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활동한 실제 사례를 익산문묘 예산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익산문묘 세입·세출 분석 결과 전통시대 지역민의 윤리적 소양과 교화, 성현에 대한 예를 도맡던 향교는 일제강점기 이후 그 운영 형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향교 운영권 및 재산처분권이 지역 유림이 아닌 조선총독부에 있었고, 이로 인해 향교 활동 역시 관변적인 성향을 보였다. 전시체제기에 가까울수록 향교의 식민지 동원 활동은 더욱 노골화 되었다.

익산문묘의 지역 사회 활동 양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출항목은 ‘교화비’와 ‘기부 및 보조금’으로, ‘교화비’는 지방개량비, 강연 및 강습회비, 선행자 표창비, 도서비, 잡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모두 193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지배정책과 관련되어 전시체제기 지역사회 동원을 위한 활동에 그 목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기부 및 보조금’ 지출의 특징은 ‘식민지배 관련 단체 지원’과 ‘시찰(視察) 지원’에 있는데 이 역시 시국 인식 및 전시체제 동원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전근대 향교는 지역민 교화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근대에는 식민지배체제에 예속되어 식민선전기관으로 전락하였다. 1930~40년대 익산문묘의 지역 사회 활동 역시 외피만 ‘향교’라는 전통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운영의 본질은 근대 식민권력기구 형태와 동일하였다. 익산문묘는 전근대와 동일하게 ‘교화’를 표방하였지만 이 때의 교화는 근대 식민주의가 유입된 이전과 다른 형태의 교화였고, 사회교화의 중요성은 일제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조되어 식민지 조선의 동원을 강요하였다.

논문접수일: 2023. 02. 10. / 심사개시일: 2023. 03. 26. / 게재확정일: 2023. 04. 05.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毎日申報』
『朝鮮日報』
『東亞日報』
『朝鮮總督府官報』
中央教化団体聯合會, 1935, 『教化事業調査會報告』第3輯.
朝鮮總督府, 1936, 『農山漁村に於ける中堅人物養成施設の概要』.
國民精神總動員忠清南道聯盟, 1939, 『國民精神總動員聯盟要覽』.
文部省, 1937, 『国体の本義』.
朝鮮教育會, 1940, 『文教の朝鮮』.
朝鮮軍事後授聯盟, 1940, 『半島の銃後陣』.
發行者不明, 1938, 『半島銃後の華』.
朝鮮總督府, 1933, 『思想問題とその取締に就て』.
朝鮮總督府, 1940, 『施政三十年史』.
人類愛社, 1937, 『人類の為の聖戰』.
益山文廟, 各年刊, 『益山文廟歲入歲出豫算報告』.
綠旗日本文化研究所, 1939, 『朝鮮思想界概觀』.
朝鮮總督府, 1938, 『朝鮮社會教化要覽』.
朝鮮總督府, 1941, 『朝鮮社會教育要覽』.
財團法人中央教化團體聯合會, 1938, 『自力更生を目指して』.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課, 미상, 『中央教化團體聯合會要覽』.
朝鮮總督府, 1937a, 『銃後美談抄』.
朝鮮總督府, 1937b, 『銃後赤心錄』.
靑城面, 1938, 『指示事項』, 수집정리번호 D12040334, 충북 옥천 가산박물관 소장 문서.
學務局, 1934, 『郷校ニ關スル調ニ關スル件』,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4809.

2. 단행본

- 김명우, 2008, 『日帝 植民地時期 郷校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향, 2015, 『제국일본의 사상』, 창비.
- 남상호, 2014,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일본제국주의와 농민세계』, 경인문화사.
- 박정란, 1997, 『韓國における社會事業の成立と展開に關する研究』, 박사학위논문, 日本女子大學.
- 박지향, 2000,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주희, 2019, 『日帝强占期 朝鮮總督府 社會敎化事業 研究』,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이규수 편역, 2012, 『일본제국의회 시정방침 연설집』, 선인.
- 함동주, 2009, 『천황제 근대 국가의 탄생』, 창작과비평사.
- 萱野稔人, 2005, 『国家とはなにか』, 以文社.
- 히우라 사토코, 2016, 『신사·학교·식민지-지배를 위한 종교 교육』, 이언숙 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2017, 『일본 신민족주의 전환기에 국체의 본의를 읽다』, 어문학사.

3. 논문

- 김순석, 2014,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태동고전연구』 33권, 35-59쪽.
- 김정인, 2006,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호, 81-114쪽.
- 남상호, 2011, 『근대일본의 국체론과 경신승조』, 『일본학보』 86호, 313-323쪽.
- _____, 2016, 『근대일본의 국민교화정책과 농촌경제개생운동』, 『한일관계사연구』 55집, 319-348쪽.
- 류미나, 2005, 『식민지권력예의 ‘협력’과 좌절-경학원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권.
- 류미나, 2007,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호, 309-341쪽.
- 서동일, 2019, 『함양향교 소장문서에 나타난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향교

동원과 변형], 『국학연구』 40집, 429-462쪽.

설주희, 2020a, 「근현대 위성 공동체의 등장과 지역사회 변동-전주향교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5권, 77-103쪽.

_____, 2020b,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화' 轉用: 도덕적인 백성에서 노동하는 '국민'으로」, 『민족문화논총』 76호, 73-102쪽.

_____, 2020c,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유교 윤리소환과 경제개생프로젝트」, 『남도문화연구』 41호, 51-83쪽.

遠藤興一, 1989, 「植民地支配期の朝鮮社会事業」 1, 『明治学院論叢』 449卷.

_____, 1992, 「植民地支配期の朝鮮社会事業」 2, 『明治学院論叢』 499卷.

_____, 1994a, 「植民地支配期の朝鮮社会事業」 3, 『明治学院論叢』 534卷.

_____, 1994b, 「植民地支配期の朝鮮社会事業」 4, 『明治学院論叢』 542卷.

_____, 1994c, 「植民地支配期の朝鮮社会事業」 5, 『明治学院論叢』 546卷.

장순순, 2020, 「석전의 상징성과 향교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 『태동고전연구』 45권, 45-75쪽.

정승진, 2012,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 『아세아연구』 150호, 196-226쪽.

靑野正明, 2004,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과 「敬神崇祖」」, 『啓明大學校·挑山學院大學國際學術seminar』 10卷.

<Abstract>

Colonial Management for the Budget of Iksan-Hyanggyo in the 1930s and 1940s

Seol, Ju-he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utilized various communities and social groups in order to effectively spread the ruling policy to villages. As a result, Hyanggyo (Confucian school) was brought over to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It used Hyanggyo to propagandize its colonial ideology and the benefit of Japanese imperialism even to the low-tier villages.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the actual cases that Hyanggyo made its activities according to the imperial polic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investigated in this paper. For the research data, the budget report of Iksan Hyanggyo was u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Iksan Hyanggyo, it was found that, after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there occurred a change of the operational practice in Hyanggyo which used to maintain the edification of local residents and the propriety for sages in the traditional era. Since the right to operate Hyanggyo and dispose its property belong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t not to the local scholars, the activities of the Hyanggyo were oriented to the government. The closer to the wartime period, the more explicit Hyanggyo's colonial mobilization activities became.

The expenditure items that showed the most active community activities of Iksan Confucian shrine were 'edification expense' and 'donation and subsidy'. All of these are related to the ruling policy of the mid-1930s. The purpose of these activities was to mobilize the local community in the wartime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donation and subsidy' expenditures were lying in 'supporting the groups related to colonial rule' and 'supporting political inspections'. This was also an activity for the wartime mobilization.

In the pre-modern era, Hyanggyo made its activities focusing on the education

* Visiting Professor, Dept. of History and Culture Contents, Jeonju University

of country village and the edification of local residents, but in the modern era, it became subordinated to the colonial regime and degenerated into a propaganda agency for the colonial policy. In the 1930s and 1940s, the local community activities of the Iksan Confucian Shrine took the traditional form of 'Hyanggyo' only outwardly, but the essence of its operation was also same as that of the modern colonial organization. Iksan Hyanggyo emphasized the same 'edification' as in the pre-modern era, but at this time, edification was a different form of edification combined with modern colonialism,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indoctrination was emphasized more as being closer to the collapse of Japanese empire.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Hyanggyo's property, Social indoctrination,
Regional rule

